

식어가는 성장엔진... 대내외 압박속 '경영능력 검증 절실'

신세대 총수시대, 주요 과제는

수출 효자 반도체 실적 하락세
글로벌 수요 감소에 후산업도 난항
국내외 경영권 압박 등 첩첩산중

신세대 총수들이 지난 해 조직 개편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세대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졌다.

올해부터는 혹독한 능력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 정부 규제까지 거세지면서 사정은 녹록지 않다.

◆떨어지는 실적을 잡아라

1월 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2%대 중반대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안팎이다.

지난 해보다 다소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대다. 당초 전망인 3%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인데, 올해에는 더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산업 '엔진'인 반도체 위기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비중은 20%를 넘는다. 반도체 업계는 지난 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4분기부터는 급격히 고꾸라졌다. 내년에는 더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지 오래다. '모빌리티 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비중은 21% 수준.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크게 낮춰잡은 목표 판매량 755만대마저 달성

하지 못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등 외국 회사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그룹사도 이같은 현상이 달갑지 않은 분야라 하다. 자동차 산업은 삼성전자와 LG 및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분야라 하다. 각사는 올해부터 자동차용 반도체와 전장 부품 사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올해에도 전장 사업 흑자 전환은 묘연하다는 평가다.

◆경영권 공격도 거세져

경영권 사수도 올해 신세대 총수들에

게는 중요한 과제다. 지분 구조가 크게 변화했고, 정부가 대기업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정부 주도의 경영권 압박이 심각하다. 이미 지난 '국정농단' 사태로 그룹 효율 경영을 주도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상태. 금융당국은 최근 자기주장을 반복하는 등 무리한 논리를 펴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55%에서 3%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배구조 재정비를 위해서는 섀넌이 복잡하다. 그룹 지배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 상반기에는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 부담만 더 커졌다. 미국 엘리엇 주도의 경영권 공격도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자칫 정희선 총괄 부회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해소 요구에는 LG그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판토스 지분을 완전히 외부에 내다 팔았고, 서브윈도 매각 작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계열 분리 작업까지 병행해야 한다. 구광모 회장이 총수를 물려받으면서,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은 계열을 분리하고 그룹 경영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 부회장은 ㈜LG 지분 7.72% 등을 보유 중이다. 시가로는 9000억원에 가깝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ool.co.kr

재계 신년사

“변화의 추동력 높여 성과 만들어가야”

박용만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였습니다.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



으로만 맡겨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되, 그 운영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답문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韓경제 중대 기로... 근본적 체질개선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지난 해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수출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한 해였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워 우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제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젊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마흔살을 넘은 것들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적극 투자할 수 있게 기업 목소리 대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는,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동계를 설득하여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 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성장 경제로 도약하는 전환점 돼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성장 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은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혁신 중소기업들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를 심



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역통계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수출시장 개척

을 돕겠습니다.

신 통상질서 대응과 수출시장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통상갈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위한 민간 차원의 신 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 유망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다변화 전략을 심층 연구하고 민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여겠습니다.